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이 두 가지 설은 모두 일의 이치에 절실하여 다른 사건으로 증거를 삼을 만한 것도 없어 어느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였다.

내가 전부터 반복해서 이를 생각해 보았는데 삼숙이 외부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나 화는 매우 다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태공과 소공이 안에서 협력하여 도와 그 형세가 매우 위태로운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삼숙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다만 내(주공)가 섭정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피하여 밖에 머물면 그들의 유언비어가 구실로 삼을 곳이 없다. 그리하여 왕실이 저절로 편하여질 터이고 형제간의 우애도 온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주공이 동쪽에 머물게 된 뜻이다. 그래서 2년을 피하였는데도 유언비어가 그치지 않았다. 주공과 삼숙(三叔)의 잘잘못이 저절로 분명해졌고, 왕실을 넘보는 뜻이 주공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왕의 의심이 비로소 풀어지면서 "죄인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주공의 마음이 어찌 피해 있으면서 삼숙의 죄를 세상에 밝히기를 바랬겠는가? 유언비어의 비방을 멈추어 형제간 우애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도 삼숙이 죄를 반성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주공이 이에 <치효(鴟鴞)>를 지어 왕에게 주고 자신의 은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담아서 마음 아파할 따름이었다. 그러다 성왕이 바람과 번개의 변란 때문에 깨닫게 되어 친히 맞이해 돌아왔다. 삼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드디어 무경(武庚)을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그런 후에야 성왕이 주공에게 동쪽으로 가서 정벌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거(居)'는 머물러 가지 않는다는 뜻이오, '정(征)'은 가서 바로 잡는다는 명칭이다. 사신(史臣)이 '동정(東征)'이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거동(居東)'이라 쓴 것이다. 만약 '거동'을 '동정'으로 여긴다면 이른바 "이년죄인사득(二年罪人斯得)"은 "2년에 이미 죄인을 죽였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주공은 즉시 군사를 인솔해서 돌아왔어야 했다. 외곽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시간을 끌면서 돌아오지 않다가 3년째 되어서 성왕이 친히 맞이하러 올 것을 기다린 후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죽였다면 어찌 그리도 급박하며, 지금에야 조정에 돌아온다면 어찌 그리도 늦은가? 만약에 성왕이 여전히 주공을 의심하기 때문에 감히 빨리 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후세에 병권을 잡고서 임금을 협박하는 부류나 할 것이다. 신하의 직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충성스러운 주공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 성인의 기상은 결코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니 '거동'이 '동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 주공이 "고아선왕(告我先王)"이라 한 것은 그의 뜻을 문왕과 무왕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그의 형이 잠시 몇 마디 말로 자신을 모함했다고 하여 금방 칼날을 들이대고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스스로 해명하고자 한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사신이 먼저 주공의 이 말을 기록하고 이어서 '거동'을 쓰고 또 이어서 '친영(親迎)의 일'을 기록했으니 반드시 다른 일로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뜻이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주공이 피해 산 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이다.

동쪽으로 정벌 나갈 때는 태공·소공을 보낼 것을 성왕에게 부탁해야 합당한데 주공 자신이 몸소 나선 것은 어째서인가? 태공·소공은 하늘이 명한토벌임을 밝혀 그들의 죄를 바로잡는데 그칠 따름이다. 그러나 주공이 직접나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여 복종시키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오래 늦추고 급히 서두르지 않은 것이다. 무왕이 주(紂)를 정벌한 것은 1월 임진일부터 2월 갑자일까지 겨우 한 달 걸려서 무력으로 진압했음을 천하에 알렸다. 하물며 은소전(殷小腆)은 파멸되어 버린 나머지인데도 무경과 삼숙의 군사력이 천자의 군사와 대항할 정도로 충분하여 주공의 파부결장(破斧缺斨)한 군사들이 토벌을 하지 못해서 3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겠는가? 문왕이 숭(崇)을 정벌할 때도 오히려 공격을 늦추고 천천히 싸워 귀순하도록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8)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제23장

자장이 물었다. "십대후의 예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공자가 말하였다. "은나라는 하나의 예를 따랐으니 그 하례를 덜고 보태어 조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은례를 덜고 보태여 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나라의 예를 계승하는 자가 생긴다면 비록 백대 후에 일일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문]

子張이 問하되 十世를 可知也이니까 子曰 殷因於夏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며 周因於殷禮하니 小損益을 可知也러니 其或繼周者면 雖百世라도 可知也리라.

[자장이 문하되 십세를 가지야이니까 자왈 은인어하례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며 주인어은예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러니 기혹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야리라.]

[이해]

십대[十代]의 원문은 십세 [十世]인데 한 세대는 삼십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기로부터 아버지는 일대[一代] 이고 자기로부터 자식은 이세라 부르는 점을 참고토록 해야 이해가 쉽다. 주는 이미 공자 때에 작은 제후국 정도의 지나지 않은 실권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종주에 불과 하였다. 역사의 변천과정을 미루어 먼 장래일지라도 어렵지 않게 추축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제24장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 조상의 영원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첨이다. 옳은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원문]

子曰 非其鬼而祭之는 諂也요 見義不爲는 無勇也니라.

[자왈 비기귀이제지는 첨야요 견의불위는 무용야니라.]

[이해]

자기 조상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복을 받으려하는 아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옳은 줄 알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는 태도는 곧 양심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뜻이다.

제3편 팔일(八佾)

팔 일편[八佾篇]은 스물여섯 장[二十六章]이며 대개 예악[禮樂]에 관련된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1장

계손씨[季孫氏]가 여덟 대열[隊列]에 군무[群舞]를 자기 집 마당에서 추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슨 짓인들 저지르지 못하리오.

[원문]

孔子謂季氏하시되 八佾을 舞於庭하니 是可忍也일진대 孰不可忍也리오.

[공자위계씨하시되 팔일을 무어정하니 시가인야일진대 숙불가인야리오.]

[이해]

계손 씨는 노소공 때의 대부인인대 후일 소공을 축출해 제나라로 몰아내었다. 본래 천자 팔열. 제후 육열. 대부사열. 사[士]이 열로 신분에 따라 체감되며 사람의 숫자도 대열수와 같다는 설도 있다. 제후국의 일개 대부가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팔열의 대부를 자기 집에서 추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도한 짓이므로 다른 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계손 씨의 방자함을 비판한 것이다.

제2장

삼대부의 집사람이 옹가를 부르며 제사를 지냈는데. 공자가 말하였다. "시경의 제후들이 도움을 받은 천자는 매우 흐뭇하도다." 하는 노래를 어찌 삼대부 집안의 사당에서 취해 쓴단 말인가.

[원문]

三家者以雍徹이러니 子曰 相維辟公이러늘 天子穆穆하심을 奚取於三家之堂인고.

[삼가자이옹철이러니 자왈상유벽공이러늘 천자목목하심을 해취어삼가지당인고.]

[이해]

삼대부집 원문은 삼가인대 노나라 맹손 숙손 계손의 세 삼대 부를 가리킨다. 이들은 대부를 조상으로 받들어 제사 지낼 수 없다는 예법을 어기고 노환공의 자손이라 하여 환공을 제사하였음은 물론 주나라 천자가 종묘에서 사용하는 시경의 옹가로 제사를 마무리한 것 역시도 외람되기 그지없는 무례한 형태임을 탓하고 있다.

제3장

공자가 말하였다. "사람됨이 인자하지 않다면 예의가 바른들 무엇할 것이며 사람됨이 인자하지 않다면 음악은 해서 무슨 소용이리오."

[원문]

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에 하며 人而不仁이면 如樂에 何오.

[자왈 인이불인이면 여예에 하며 인이불인이면 여악에 하오.]

[이해]

예악을 닦는 까닭은 사람의 근본적인 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본바탕 실체는 그대로 놔두고 겉치레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제4장

임방이 예의 근본의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훌륭한 질문이다,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사를 당하면 형식을 갖추기 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원문]

林放이 問禮之本하되 子曰 大哉라 問이여 禮與其奢也는 寧儉이요 喪與其易也는 寧戚이니라.

[임방이 문예지본하되 자왈 대재라 문이여 예여기사야는 영검이요 상여기역야는 영척이니라.]

[이해]

임방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이다. 올바른 예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 근본을 이루는 까닭에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위선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제5장

공자가 말하였다. 오랑캐족속들에게 임금이 있는 거시 중국의 여러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원문]

子曰 夷狄之有君이 不如諸何之亡也니라.

[자왈 이적지유군이 불여제하지망야니라.]

[이해]

형병의 설인데 미개한 오랑캐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 해도 예의가 밝지 못하므로 분명한 중국에서는 어쩌다 임금이 없더라도 예의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나라들이 임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제6장

계씨가 태산에서산체에서 지내려 하자. "공자 염구에서 말하였다. 너는[그를 무도한 죄에서] 구해낼 수 없느냐?"대답하기를 "불가능 합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슬프도다. 그래 태산의 산신이 예의 근본을 물은 임방만도 못하더란 말인가?"

[원문]

季氏如於泰山이러니 子謂冉有曰 女不能求與아 對曰 不能이니다 子曰嗚呼라 曾謂泰山이 不如林放乎아

[계씨여어태산이러니 자위염유왈 여불능구여아 대왈 불능이니다 자왈오호라 증위태산이 불여임방호아]

[이해]

태산은 지금 신 동산 태안현 북부에 위치한 노나라의 경내에 있는 산으로 계씨가 제후라야 자기 봉지 안에 산천에 제사지낼 수 있는 예법을 무시하고 일개 대부가 무도한 짓을 감행하려는 것이 중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의 근본을 질문한 바 있는 임방과 태산의신을 빌려 도리가 아님을 개탄하고 있다. 여제는 산에 지내는 제사이고 염유는 이름이 구. 자는 자유며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스물아홉 살이 연소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계씨의 가재로 봉직하고 있었다.

특기별고 〈45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11)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선 조 (宣祖) 31년(무술;1598년) 정월에 충의공은 이 때 53세로서, 명나라 경리 양호에게 도산의 포위를 풀고 돌아 갈 것을 청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양호가 울산의 도산 왜적 포위한 것이 13일이나 되었는데, 마침 추운 날씨에 큰 비가 내려 사졸들이 모두 얼고 굶주렸다. 이를 왜적들이 알아채고 금백(金帛)과 진기한 보배를 성 밖으로 던지니 명나라 군사가 크게 떠들며 다투어 줏아가 줍는 고로 왜적이 이처럼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군사를 풀어 공격해 왔다. 이에 조명 연합군의 죽은 자가 15-6명에 이르므로 충의공이 곧 양호에게 포위를 풀고 돌아가자고 하였던 것이다.

6월에는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8월에는 임금의 명으로 충의공으로 하여금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의 휘하에 속하게 되었다. 명나라 군대가 4로(路)로 나뉘어 파견되었는데 마귀는 곧 동로장(東路將)이었다. 10월에 명나라 장병을 좇아 진병하여 왜적의 보루를 압박하고 11월에는 왜적들이 달아나서 호남과 영남이 모두 평정되었다. 이때 왜적의 우두머리 간파쿠(關白관백)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풍신수길, 1537-1598)이 죽자, 여러 왜적 진영의 사기가 크게 해이해져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남해안으로 모이고, 이에 다가 명나라의 군사가 네 길로 들어와 남쪽에 모이니 도합 14만이었다.

충의공은 자주 제독인 동로장 마귀에게 싸울 것을 청하였으나 마귀가 듣지 않았다. 이에 충의공이 그 비겁함을 풍자하기에 이르자, 명나라의 삼로장(三路將) 동일원(董一元)이 드디어 사천(泗川)에서 적을 맞아 싸워 대파했고, 서로장(西路將) 유정(劉綎)이 계책으로 적을 유인하여 스스로 퇴각하게 하였으며, 수로장(水路將) 도독 진인(陳璘)이 왜적을 노량에서 무찌르니 왜적들은 배를 타고 외양(外洋)으로 달아나 사라졌다. 12월에 가의대부(嘉義大夫;종2품)로 승진하였는데 경상도 방어사(무관 종2품)를 겸직한 것은 전과 같았다.

다음해인 선조 32년(기해; 1599년)에 공은 54세로서 2월에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가 되었다. 방어사를 겸직한 것은 전과 같았다. 밀양부는 여러 차례 병화가 할퀴고 가서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탈진하여 있었다. 충의공이 새로 부임해 와서 위로하고 안집(安集)시키며 때를 빗질하듯 씻어 내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듯 다스리니, 한 해 동안에 마을과 여항(閭巷)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에 충의공은 공자묘(孔廟; 문묘文廟; 향교 대성전)를 수축하고 몸소 여러 유생을 거느리고 석채례(釋菜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 당재(堂齋;향교의 명륜당과 동·서재)를 수리하여 유생과 스승으로 하여금 학습할 장소로 쓰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흡연히 일어나 힘쓰게 되었다. 가을 9월에는 여러 군현을 순시하고 병마를 훈련시켰다.

선조 33년(경자;1600년) 3월에 충의공이 55세로서 경주를 순도하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5, 시호는 문원공文元公)의 옛 거택을 방문하였다.

여름 4월에 관직이 교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고 5월에는 의흥위 부사직(義興衛副同直)을 배수하였다. 6월에는 선조의 왕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1555-1600)가 승하하자 대궐에 나아가 곡을 하였다. 8월에 영변대도호부사(寧邊大都護府使)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다시 부사직 겸 오위장(五衛將;종2품))을 배수하였다. 9월에는 여러 재신(宰臣)을 좇아 개성부에 나아가 명나라 장병을 전송하였다. 11월에는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선조 34년(신축;1601년) 정월에는 충의공이 56세로서 정월에 호분위(虎賁衛) 상호군(上護軍)으로 제수되고 겸하여 사복장(司僕將)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7월에는 화양동(華陽洞)에 복거(卜居)하였다. 화양동은 고향의 신녕 고을 서쪽 수리 허에 있는데, 명나라 사람 두사충(杜思冲)과 서로 도와 집 앞에 반 묘(畝)의 연못을 파고 버들과 소회향(小茴香)을 심어 놓고 계옹야로(溪翁野老)들과 더불어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니 한가한 정취가 유연하였다. 10월에는 예천의 고평리(高坪里)로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 시호는 정간공貞簡公)을 예방하였다. 정탁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문인이다. 이 때 정탁은 좌의정으로서 벼슬을 그만두고 퇴거하여 있었다. 이듬해인 선조 35년(임인;1602년) 9월에는 충의공이 57세로서 부사직 겸 내금장(內禁將)으로 제수되니 조정에 올라가 사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正己篇

○ 蔡伯喈 曰(채백개 왈) 喜怒(희노)는 在心(재심)하고 言出於口(언출어구) 하나니 不可不愼(불가불신)이니라.

해설: 채백개가 말하기를,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 宰予(재여)가 晝寢(주침)이어늘 子曰(자왈) 朽木(후목)은 不可雕也(불가조야)요 糞土之墻(분토지장)은 不可杇也(불가오야)니라.

해설: 재여가 낮잠을 자고 있으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는 다듬지 못할 것이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을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참고:*채백개(蔡伯喈)는 후한(後漢)때의 학자로 이름은 옹(邕),자(字)는 백개(伯喈)이다. 그리고 채중랑전집(蔡中郎全集)을 저술 한 분이다.

*재여(宰予)는 춘추시대(春秋時代)노(魯)나라 사람으로 자는 子我, 宰我라고도하며, 공자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말솜씨가 뛰어났다.

蔡..나라채, 伯..맏 백, 愼..삼가할 신, 宰..재상 재, 予..나 여, 晝..낮 주, 寢..잘 침, 朽..썩을 후, 雕..다듬을 조, 糞..똥 분, 墻..담장, 圬. 흙손 오.

○ 紫虛元君誡諭心文에 曰(자허원군성유심문에왈) 福生於淸儉(복생어청검)하고 德生於卑退(덕생어비퇴)하고 道生於安靜(도생어안정)하고 命生於和暢(명생어화창)하고 憂生於多慾(우생어다욕)하고 禍生於多貪(화생어다탐)하고 過生於輕慢(과생어경만)하고 罪生於不仁(죄생어불인)이니 戒眼莫看他非(계안막간타비)하고 戒口莫談他短(계구막담타단)하고 戒心莫自貪嗔(계심막자탐진)하고 戒身莫隨惡伴(계신막수악반)하고 無益之言(무익지언)을 莫妄說(막망설)하고 不干己事(불간기사)를 莫妄爲(막망위)하고 尊君王孝父母(존군왕효부모)하며 敬尊長奉有德(경존장봉유덕)하고 別賢愚恕無識(별현우서무식)하고 物順來而勿拒(물순래이물거)하며 勿旣去而勿追(물기거이물추)하고 身未愚而勿望(신미우이물망)하며 事已過而勿思(사이과이물사)하라. 聰明(총명)도 多暗昧(다암매)요 算計(산계)도 失便宜(실편의)니라. 損人終自失(손인종자실)이오 依勢禍相隨(의세화상수)라 戒之在心(계지재심)하고 守之在氣(수지재기)라 爲不節而亡家(위불절이망가)하고 因不廉而失位(인불염이실위)니라. 勸君自警於平生(권군자경어평생)하나니 可歎可驚而可思(가탄가경이가사)니라. 上臨之以天監(상임지이천감)하고 下察之以地祇(하찰지이지지)라 明有三法相繼(명유삼법상계)하고 暗有鬼神相隨(암유귀신상수)라 惟正可守(유정가수)요 心不可欺(심불가기)니 戒之戒之(계지계지)하라.

해설: 자하원군의 성유심문에 말하기를 "복(福)은 검소하고 맑은 데서 생기고 덕(德)은 겸손하고 사양하는데서 생기며 도(道)는 편안하고 고요한데서 생기고 생명(生命)은 순하고 사무치는 곳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데서 생기며 과실(過失)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罪惡)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내고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벗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내게 관계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어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어른을 삼가 존경하고 덕이 있는 이를 받들며 어질고 어리석은것을 분별하고 무식한 자를 꾸짖지 말고 용서하라.

물건이 순리(順理)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여 쫓지 말며 몸이 불우(不遇)에 처했더라도 바라지 말고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놓았어도 편의(便宜)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케 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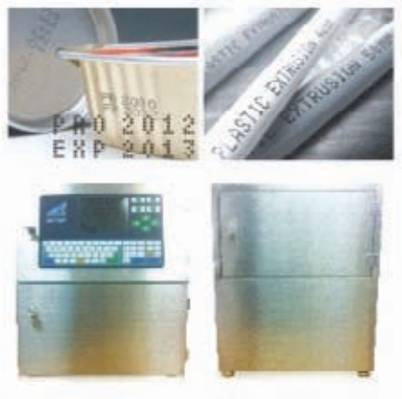
경계하는 것은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않음으로써 지위(地位)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할지니라.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임하여 있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삼 법(三法)이 이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은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하셨다.

참고: 자허원군(紫虛元君)은 도가(道家)에 속하나 이름과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

紫..붉을 자, 虛..빌 허, 諭..고할 유, 儉..검소할 검, 卑..낮을 비, 천할비
暢..화창할 창, 慢..업신여길 만, 隨..따를 수, 伴..짝 반, 妄..망녕될 망, 恕..용서할 서, 識..알 식, 拒..막을 거, 追..쫓을 추, 遇..마날 우, 望..바랄망, 昧..어둘 매,
警..경계할 경, 守..지킬 수, 欺..속일 기.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희소식 :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에게 타 작명소에서 20-30만원을 할인(반값에)해드립니다.
● 평생 사주 재물운 궁합·택일 건강운 미래운
심리상담자격 노인건강지도자격=노인치매예방질병자격증 소지
서울 도봉구 쌍문3동 88-21 편의점(2층) (심리상담실 운영 자격有)
전화 : 02)987-3265 팩스 : 02)996-9857 010-9762-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 : 전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 100m(편의점2층)
◆ 옛날 공자님의 말씀 이름이 좋으면 출세, 잘먹고 산다
◆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고 과학이다
일도 철학원 권 영 섭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국내 제조
H Holy Inks (주)HI-TECH 에이치아이테크
대표이사 권 성 률
(39. 인천. 추밀공파 제간공계. 35世)
C.P 010-7325-7556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B동 1019호
Tel : 070-8780-7556
Fax : 032- 572-9996
E-mail : navy9994@naver.com
http://www.HolyInks.com